

開化期 日帝治下の 公共圖書館에 관한 研究[2]

權 恩 璟
啓明實業專門大・專講

3. 公共圖書館의 實態分析

(1) 公共圖書館의 實態(1919~1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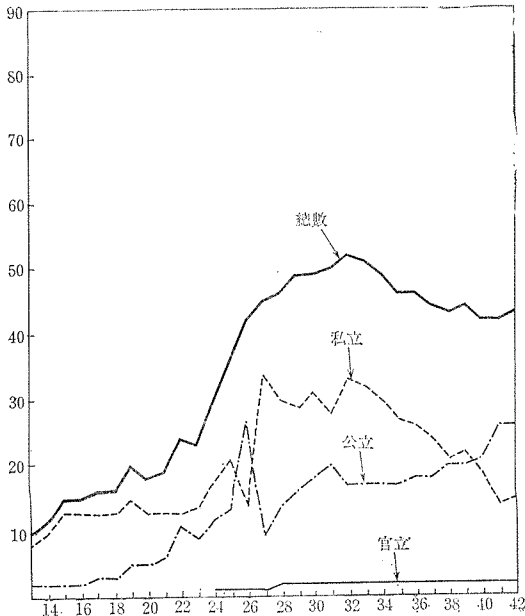
論述하기에 앞서 圖表 1. 2. 3. 4를 볼 때 有意할 점을 指摘해 두겠다. <圖表 2, 3, 4>에 있어서 1924年에서 26年에 걸쳐 私立圖書館이 急降하고 있는 理由는 1920年에 創立된 私立滿鐵京城圖書館이 25年에서 27年까지 總督府統計年報에 報告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官立의 藏書數・利用者數가 28年에 急増한 것은 私立滿鐵京城圖書館이 朝鮮鐵道局運營의 官立鐵道圖書館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鐵道圖書館의 經費는 全然 報告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圖書館數 藏書數 利用者數는 鐵道圖書館을 포함하나, 經費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42年의 데이터에는 公・私立이 一括하여 計上되어 있기 때문에 分離 記載되지 않았다.

1) 圖書館數의 推移

<圖表 1>에서 圖書館數의 推移를 考察하건대, 1919年以後 文化政治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圖書館數에 급속한 變化가 오지는 않았다. 數的인 變化는 오히려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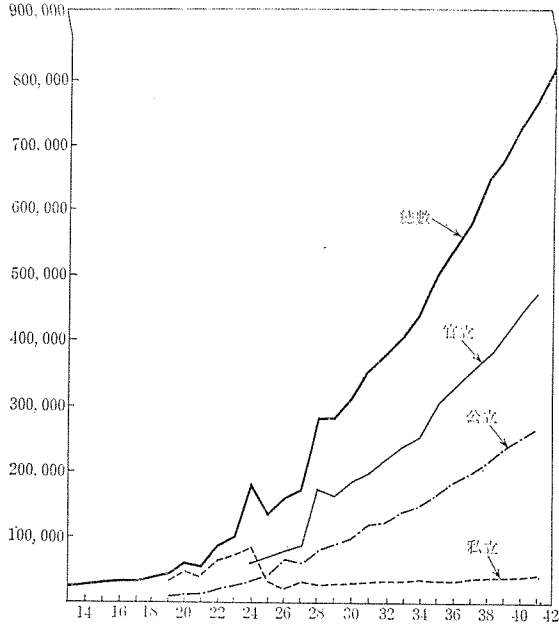
<圖表 1>

圖書館數의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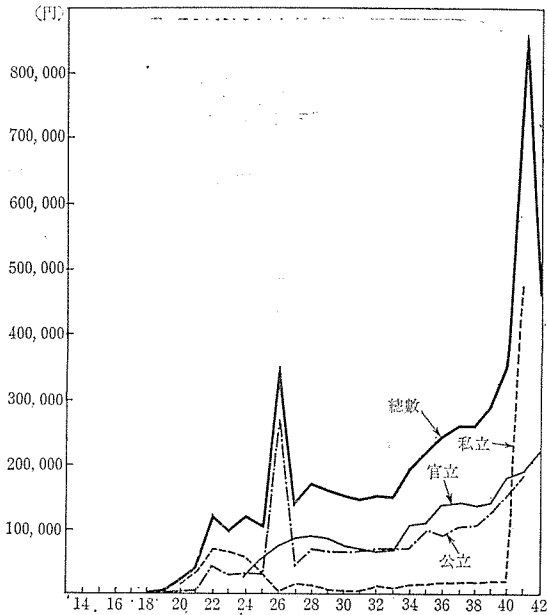
〈圖表 2〉

藏書數의 推移



〈圖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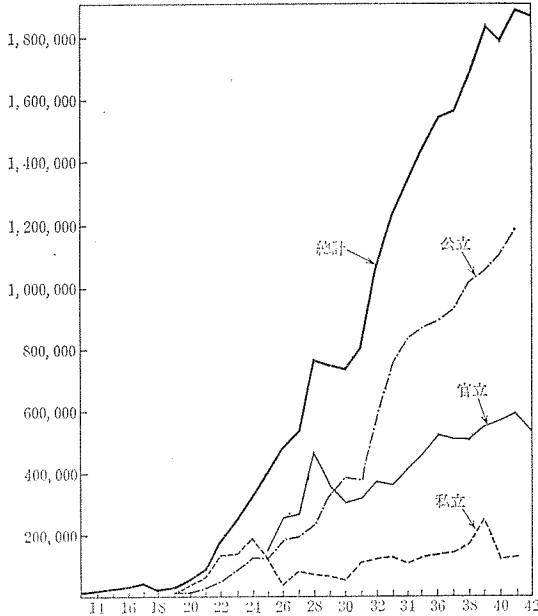
經費의 推移



年の 郷校財産法規定에 의해 圖書館設置가 急増한 1923年以後였다. 1926년부터 32年까지는 圖書館總數가 增加一路로 私立·公立 館數의 變化가 激甚하다. 그 理由는

〈圖表 4〉

利用者數의 推移



郷校財産에 의한 圖書館이 해(年)에 따라 私立 또는 公立으로 一慣性없이 報告되어 있기 때문이다. 郷校財産은 本章의 初頭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일단 公共財産이기는 하나 엄밀히 말하자면 地方郷校의 所有物이므로 財産의 用途도 地方儒林의 隨意에 의해 影響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이 財産에 의해 設立된 圖書館을 公·私立 어느쪽에 分類하는가에 論議가 있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1932년에 郷校財産에 의한 圖書館은 全部 私立으로 規定되었다. 圖書館數의 增加도 32年을 頂點으로 점차 감소하나, 그 후의 變化로서 注目할 것은 私立이 減少하는데 비해 公立이 增加한 것이다. 이것은 圖書館活動 및 必要性이 社會的으로 認識되기 시작한 證據라고 하겠다.

2) 藏書數의 推移

藏書數는 1924年과 28年의 急増, 25年의 急減을 제외하면 꾸준히 增加했다 하겠다. 23年에서 24年에의 急増은 總督府圖書館의 創立에 의한 것이며, 25年에 急減한 것은 私立滿鐵圖書館이 報告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全體 藏書의 增加率 및 官·公·私立別의 一館當의 藏書數, 藏書增加率을 年度別로 追跡해 보자. (鐵道圖書館이 官立으로 된 것은 1928年을 基點으로 한다)

〈表 4〉에서 알 수 있듯이, 私立圖書館의 總藏書數는 1928年에서 41年까지 145%밖에 增加하지 않았으나 1館當 增加率은 310%를 보이고 있다. 館數가 줄어든 것은

〈表 4〉 公共圖書館의 藏書增加率

種別 \ 年度	1928(index)	1930	1933	1936	1939	1941
全體	286, 692(100)	315, 244(110)	407, 976(142)	543, 960(190)	681, 237(238)	772, 789(270)
官立 1館	89, 305(100)	93, 320(104)	119, 208(133)	163, 697(183)	204, 437(229)	236, 400(265)
公立 "	5, 730(100)	5, 432(96)	8, 122(142)	10, 228(178)	11, 772(205)	10, 181(177)
私立 "	928(100)	965(104)	984(106)	1, 249(135)	1, 678(181)	2, 878(310)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에 의해서 作成.

39년부터 41년에 걸쳐 종래의 零細私立圖書館이 合併되었거나 自然 消滅한 것으로 推測된다. 公立圖書館에 있어서의 私立圖書館과는 反對現象을 보이고 있다. 즉, 同一期間의 藏書總數의 增加率은 330%이나 一館當增加率은 200%전후이다. 官立 2館의 藏書는 尙상 總圖書館藏書의 50~60%를 차지하고 있다.

3) 經費의 推移

朝鮮圖書館의 零細性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圖書館經費이다. 즉, 圖表의 曲線의 頂點은 거의 모든 경우 新設圖書館의 設立費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2년에는 2개의 府立圖書館이 24년에는 總督府圖書館, 26년에는 私立京城圖書館이 府立으로 되었기 때문에 약 22萬圓의 임시비가 지출되었고 28년에는 平壤府立圖書館이 設立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33년부터 40년까지가 通常의 增加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 동안 公立一館의 經費는 33년에 4, 133圓, 37년에 5, 806圓, 40년에는 7, 180圓으로 增加했고 私立은 각각 340圓, 677圓, 1, 147圓이다. 當時의 인플레이션을 考慮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增加率을 論할 수는 없겠으나 私立은 40년에 들어와서 겨우 年間經費 1, 000圓을 計上하게 되었다.

總督府圖書館의 經費는 1926年の 例外를 제외하면 尙상 全國圖書館經費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朝鮮의 圖書館狀況이 얼마나 奇型的이었나를 나타내고 있다. 〈圖表 3〉에서 理解할 수 없는 것은 1941년의 私立圖書館經費의 極端的인 增加이다. 總額 850, 436圓중 709, 463圓이 경기도의 經費이므로 일단 경기도 內의 私立圖書館에 있어서의 變化라 생각되나 原因은 確認할 수 없다.

4) 利用者數의 推移

〈表 5〉 館種別 1日平均利用者

種別 \ 年度	1919	1922	1925	1928	1931	1934	1937	1940
全體	2, 8496 (100)	190, 168 (667)	400, 165 (1, 404)	760, 204 (2, 668)	798, 376 (2, 802)	1, 336, 945 (4, 692)	1, 565, 442 (5, 494)	1, 789, 966 (6, 281)
官立1館1日	.	.	498	728	466	608	—	824
公 "	9	18	26	60	70	175	—	182
私 "	3	35	24	8	16	15	—	37

利用者數는 1928年에서 30年에 걸쳐 若干 減少(鐵道圖書館의 利用者 減少에 의한) 한 것 외에는 戰時에 이르기까지 현저한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官立 2館의 利用者 가 항상 全利用者의 25~30%를 確保하고 있다는 것은 또 한번 圖書館의 奇型的 發達을 생각케 한다. 여기서 館種別 一館當의 一日平均利用者數를 보기로 한다.

1922年, 25年の 私立圖書館 閱覽者가 急增한 것은 滿鐵圖書館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滿鐵圖書館이 官立으로 된 28년에는 私立 一日平均利用者數는 다시금 10人 以下로 떨어지고 말았다. 官立과는 별도로 公立은 28年부터 活況을 보이며 私立의 경우는 40年에 이르러서도 아직 圖書館으로서 充分히 活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朝鮮의 公共圖書館實態를 考察하건대, 1930年代에 들어 비로소 圖書館으로의 基盤이 잡히고 社會的으로도 認識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圖書館人 측에서도 이러한 狀況을 利用해서 1935年에 第29回全國圖書館大會를 基點으로 새로운 時期의 到來를 계획했던 것이다.

(2) 1932年度의 Sample分析⁵²⁾

1) 朝鮮의 圖書館構造

〈表 6〉에 朝鮮의 圖書館構造를 考察하기 위해 圖書館을 設立者別로 整理했다. 먼 저 눈에 띄는 것은 公立의 17館中 府立이 13館인데 비해, 道立은 단 1館뿐이며, 邑立 또한 3館밖에 없다는 것이다.

朝鮮圖書館의 問題로서 道立圖書館設置에 關한 件은 1931年 朝鮮教育會가 主催한 「圖書館事項講習會」에서 이미 擧論된 바 있었다. 京城府立圖書館長 大山은 同講習會에서 朝鮮圖書館網의 건설, 圖書館令의 制定, 各道에 一館以上の 道立圖書館을 設置하여 管内 府邑面立圖書館의 中心이 되게 할 것 등을 論했다.⁵³⁾

大山은 13道の 대부분이 道立圖書館을 設立하지 않는 理由는 府立으로 代用하면 된다는 思考方式에 起因하는 것이나 道立과 府立의 機能은 完全히 區別해야 한다고 主張했다.⁵⁴⁾

그러나 한편에서는 「道立圖書館建設을 提唱하는 說을 論駁한다」는 主張도 일어났 으니, 그 論調에는 식민지에 있어서의 圖書館行政問題도 얽혀 있는 듯이 보여 注意를 끈다. 이 反論은 農村文庫의 先驅者 姜辰國에 의한 主張으로 圖書館事業에 行政的 組織體系는 不必要하며 따라서 道立 및 郡立圖書館建設은 反對라는 論旨였다.⁵⁵⁾

52) 1932年度의 圖書館은 sample로 分析하는 이유는 館數가 가장 많고, 『總督府統計年報』가 1932年으로 個別圖書館에 關한 正確한 統計를 증지했기 때문이다.

53) 大山一夫, “圖書館의 諸問題,” 朝鮮文圖書館, no.1, 1931, p.32

54) Ibid.

55) 姜辰國, “農村文庫創設의 急務(二),” op. cit., pp. 33-34.

〈表 6〉 設立者別 1932年度圖書館一覽表

種別	館名	設立者	所在地	圖書冊數		開館日數	閱覽人數	支出額(圓)	
				和漢書	洋書			經常費	臨時
官立	朝鮮總督府圖書館	總督府	京畿道京城府	121,860	7,998	345	260,555	67,247	68
"	鐵道圖書館	鐵道局	"	82,681	8,826	324	106,149	—	—
公立	全北文庫	全羅北道	全北 全州郡	3,091	13	305	3,448	540	—
"	京城府圖書館	京城府	京畿道京城府	33,732	1,360	290	219,760	28,742	—
"	同鍾路分館	"	"	17,213	656	294	140,596	—	—
"	仁川圖書館	仁川府	" 仁川府	5,740	50	293	13,789	2,626	—
"	群山府圖書館	群山府	全北 群山府	7,629	21	185	4,312	2,554	3,262
"	木浦圖書館	木浦府	全南 木浦府	4,086	162	293	24,108	1,539	300
"	大邱府圖書館	大邱府	慶北 大邱府	9,737	266	289	5,154	4,830	—
"	釜山府圖書館	釜山府	慶南 釜山府	11,977	496	288	21,063	2,621	—
"	馬山府圖書館	馬山府	" 馬山府	4,219	34	290	3,257	765	—
"	平壤府圖書館	平壤府	平南 平壤府	13,433	399	283	85,755	17,312	256
"	鎮南浦府圖書館	鎮南浦府	" 鎮南浦府	1,272	5	116	535	483	—
"	咸興府圖書館	咸興府	咸南 咸興府	1,607	75	289	29,719	2,063	—
"	元山府圖書館	元山府	" 元山府	2,042	25	276	1,824	323	—
"	清津府圖書館	清津府	咸北 清津府	145	1	365	114	100	—
"	清州圖書館	清州邑	忠北 清州郡	3,113	10	282	10,804	758	—
"	光州邑圖書館	光州邑	全南 光州郡	2,927	9	296	19,066	1,521	—
"	御成婚記念 海州圖書館	海州邑	黃海道海州郡	940	—	303	182	200	—
私立	尋常小學校內 安城圖書館	公立尋常 小學校	京畿道安城郡	578	15	250	50	—	—
"	鳥致院圖書館	福永喜八	忠南 燕岐郡	1,744	—	276	500	—	—
"	金堤教育會 城山圖書館	金堤 教育會	全北 金堤郡	3,091	13	305	3,448	—	—
"	順天圖書館	樋口正毅	全南 順天郡	568	—	120	45	—	—
"	靈巖文庫	佐佐木仙 助	" 靈巖郡	400	—	180	30	—	—
"	福壽會恩賜記念文庫	福壽會	慶南 馬山府	1,450	250	302	8,500	370	—
"	仁貞圖書館	金仁貞	平南 平壤府	4,981	51	295	52,324	4,827	—
"	簡易圖書館	新義州府 教育會	平北新義州府	2,303	2	353	7,763	300	—
"	淮陽圖書館	淮陽 繁榮會	江原道淮陽郡	258	—	347	3,461	—	—
"	學校財產による 圖書館(24)	—	—	—	—	—	—	—	—
計	圖書館(24)	—	—	19,358	260	5,912	47,879	6,485	200
總計	52館	—	—	359,454	20,999	13,806	1,071,053	146,206	4,086

즉 圖書館의 本質이 결코 行政機構的인 意義를 갖지 않으므로 道立圖書館은 그 管
 下의 府邑面으로 하여금 圖書館建設事業을 재촉하는 것은 不可能하며, 만일 道立圖
 書館制度가 成立되던 圖書館事業도 자연히 行政官廳式의 上下明文이 정해져 일종의
 意識의 · 無意識의, 權力服從關係가 形成될 것이라 憂慮했던 것이다. 論者는 더 나아
 가 各各의 圖書館은 그 存立하는 地方의 特殊事情과 經營者의 理想에 따라 一心不
 亂邁進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일일이 監視되고 간섭 통제된다면 참을 수 없다고까지

激論하였다.

以上으로 보아, 中央圖書館制度가 朝鮮人圖書館人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는 확실하다. 資料가 없어 圖書館의 實際的 行政體制를 分析할 수는 없으나, 一般 植民行政에 있어서의 監視・統制體制가 圖書館의 組織・行政에도 이러한 우려를 가져왔으리라. 實際로는 監視・統制할 만한 組織的인 圖書館網의 形成과는 먼 狀態에서 끝나고 말았지만 中央圖書館制度, 圖書館網이 이렇게 밖에 理解되지 않았던 것은 유감이라 하겠다.

2) 經費・藏書

〈表 6〉에 의하면, 1,000圓이상의 經費를 計上하고 있는 12館⁵⁶⁾은 모두 官公立으로 私立 33館중 1,000圓이상의 經費를 計上하고 있는 곳은 開城圖書館과 仁貞圖書館 둘 뿐이다. 後述하겠으나, 1939년에 結成된 「朝鮮圖書館聯盟」이 加入圖書館의 經費를 500圓으로 책정한 것을 參考하여, 圖書館으로서 活動하기 위한 最少限의 經費를 500圓으로 본다면, 겨우 16個館만이 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藏書規模를 보면, 公立 17館의 平均藏書는 7,436冊, 私立은 1,063冊이다. 그러나 平均値이상의 藏書를 所藏하고 있는 곳은 公立 17館중 6館이며 私立은 33館중 8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設立種別의 平均値란 실은 無意味한 것이다.

3) 圖書館의 利用狀況

〈表 7〉 1932年道 道別人口, 圖書館數, 읽고 쓸 수 있는 者(%)*

道	朝鮮人	日本人	朝鮮人+日本人	館 數	1 館當人口	읽고 쓸 수 있는者(%)
京 畿 道	1,981,971	134,639	2,116,610	8	264,576	32.5
忠 清 北 道	858,111	7,916	866,027	1	866,027	19.6
忠 清 南 道	1,349,622	23,983	1,373,605	3	457,868	22.6
全 羅 北 道	1,410,108	33,558	1,443,666	3	481,222	22.3
全 羅 南 道	2,239,346	41,554	2,280,900	6	380,150	20.1
慶 尙 北 道	2,299,618	48,319	2,347,987	2	1,173,993	17.8
慶 尙 南 道	2,015,817	86,067	2,101,884	11	191,080	19.6
黃 海 道	1,474,576	18,147	1,492,713	1	1,49,723	25.4
平 安 南 道	1,278,736	32,960	1,311,696	3	437,232	31.2
平 安 北 道	1,511,215	19,971	1,531,186	9	170,131	27.1
江 原 道	1,421,860	11,660	1,433,520	2	716,760	19.2
咸 鏡 南 道	1,499,598	35,928	1,535,526	2	767,763	24.2
咸 鏡 北 道	696,645	28,750	725,395	1	725,395	27.4
總 計	20,037,273	523,452	20,560,725	52	[平均] 395,398	[平均] 23.6

* 韓國語, 日本語의 兩者 또는 어느 한쪽만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을 全部포함.

56) 京城府立圖書館은 2館으로 계산하며 鐵道圖書館도 포함시켰음.

우선, 各道別人口와 圖書館數에서 1館當 奉仕해야 할 人口, 보다 實質的인 分析을 위해 읽고 쓸 수 있는 者 등을 道別로 정리하여 考察한다.

〈表 7〉에서 알 수 있듯이 1館當 봉사해야 할 平均人口는 約 40萬이다. 이것을 前述한 500圓이상의 經常費를 計上하는 圖書館, 즉 圖書館으로서의 最少限의 機能을 遂行한다고 가정한 16館만으로 생각해 본다면 1館의 奉仕人口는 約 147萬이다. 이것을 當時의 8割에 가까운 文盲率과 關連해서 생각하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⁵⁷⁾

그러면 實際의 圖書館利用狀況은 어떠한가? 1日 1館의 平均利用者數는 77人(公立 140人, 私立 13人)으로 1年間 全人口 5%만이 圖書館을 利用한 것이 된다. 읽을 수 있는 者만이 利用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約 22%가 1년에 한번 圖書館을 利用했다고 推算된다. 그러나 當時의 利用者는 거의가 學生 또는 資格試驗의 受驗準備者였으므로 실제 利用者는 극히 限定되었었다.

3. 戰時下(1938~1945)의 圖書館 活動

1937年 中國에 대한 全面的인 侵略을 開始한 日本은, 1941年에는 太平洋 戰爭을 敢行하였다. 戰爭을 遂行하기 위해 소위 國家總動員을 實施했다. 日本 國內에서도 各種 非常조치가 취해졌으니 植民地였던 朝鮮에서의 조치는 더욱 深刻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1938年 3月 南次郎 總督은 國勢에 발 맞추고 世運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國體明微, 內鮮一體, 忍苦鍛鍊의 3大 教育方針을 徹下하여 大國民으로서의 志操·信念의 鍊成을 基幹으로 할 것⁵⁸⁾이라고 宣布하였다. 特히 內朝一體를 명목으로 1938年 3月의 教育令 改正에 임하여는 朝鮮語 使用을 금지하기에 이르렀고, 1941年 4月부터는 普通學校를 「國民學校」로 개칭하여 性格은 점점 軍國主義의 색채를 띄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모든 民族의 文化活動이 금지되었다. 朝鮮語 新聞·雜誌가 廢刊되고, 1940年에는 內鮮一體의 美名下에 「創氏改名」이 敢行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戰時體制下에서 圖書館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이 時期의 圖書館事業은 日本·朝鮮 할 것 없이 「不要不急」의 事業으로 社會로부터 徹底하게 무시당하였다. 圖書館으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當局이 不穩思想이라고 指摘한 圖書를 조처하고 戰爭이 한층 深刻해짐에 따라 疎開作業에 着手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皇紀 2600年(1940)의 記念事業의 하나로, 總督府 圖書館이 內地(日本)의 帝國圖書館에 버금가는 參考圖書館으로서 體制整備에 착수했던 것. 國民總力聯盟의

57) 1930年度의 朝鮮總人口중 한국어든 日本語든 어느 한쪽만이라도 읽고 쓸 수 있는 자는 約 24%였으며 朝鮮人중 日本語 및 한국어를 모두 읽고 쓸 수 있는 자는 겨우 6.8%에 지나지 않았다.

58) 李萬珪, op. cit., p.339.

一環으로 「朝鮮圖書館聯盟」이 結成되었던 것은 명분이야 어찌 되었든간에 實行 內容으로 보아 評價할만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皇紀 2600年の 記念事業으로서 1938년에 全 朝鮮圖書館 事業의 劃期的인 振興이 계획되었다. 非常 時局下에서 産業의 振興, 資源開發의 根本資料를 提供하기 위해, 장차 一般社會人의 思想善導의 中心이 되기 위해 必要不可缺한 文化機關⁵⁹⁾이 되어야 할 圖書館이 너무나도 無力한 것을 통감한 總督府圖書館의 荻山館長이 「全鮮府·私立圖書館 振興計劃」을 세운 것이다. 우선 基本 良書의 備附, 巡回文庫의 확충, 圖書館用品의 規格統一, 圖書館員의 質的 改善을 위해 매년 강습회를 開催할 것, 官廳刊行物의 원활한 配布 등을 實行目標로 하였다.⁶⁰⁾ 計劃에 앞서 荻山관장을 비롯한 總督府 圖書館의 中心 멤버가 直接 各地의 圖書館에 나가, 行政當局으로부터 計劃에 필요한 最少限의 新規增額에 關해 協議, 諒解를 얻었다.⁶¹⁾

이러한 荻山館長의 積極적인 圖書館 振興方針은 그 후 새로운 圖書館의 設置時에 現地에 總督府 圖書館 사서를 派遣하여 開館의 準備作業을 하게 하는 것으로 代行되었다. 이 계획은 現地에 圖書館 業務의 책임자가 없었다는 것이 主된 理由였으나, 圖書館 業務의 統一을 꾀하였다는 意味에서 볼 때, 이 時期에 있어서 높이 評價할만한 단 하나의 圖書館 事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의 혜택을 받은 곳으로는 全州府立圖書館(1939年), 大田府立圖書館(1940年), 開城의 中京文庫(1944年)등을 들 수 있다.

1938년에 시작한 이 「全鮮府私立圖書館 振興計劃」이 1939年 4월에 15個 圖書館으로 된 「朝鮮圖書館聯盟」을 구성하였다. 同 연맹의 性格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規約을 拔萃 考察해 본다.

第一條 ……朝鮮 圖書館의 相互연락 제휴에 의한 斯界의 向上 發展을 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第三條 本 聯盟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 一. 圖書館 運營에 關한 調查 및 改善을 促進
- 二. 圖書 및 圖書館 用品의 購入斡旋
- 三. 圖書의 相互貸借에 關한 斡旋
- 四. 圖書標準目錄 및 機關誌類의 발행
- 五. 圖書館 强습회의 開催

59) “後凋錄, 全鮮府私立圖書館振興 第1次計劃,” 文獻報國, Vol.5, no.2, 1939, p.18.

60) Ibid.

61) Ibid.

六. 研究會·展覽會·講演會 등의 開催

七.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事項

第五條 本 聯盟 加盟의 公共圖書館은 聯盟事業에 協力하기 위하여 必要한 經費를 計上해야 한다.

第六條 本 聯盟 加盟의 公共圖書館은 本聯盟의 선정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한다.

第八條 理事長으로는 總督府 圖書館長을 천거한다.

이 規約外에 「朝鮮圖書館聯盟 協力經費申書」라는 것이 있어, 여기에 同연맹 규약 제5조의 協力經費를 500圓으로 定하고 그 用途로는,

1. 圖書館 全經費의 5분의 3 이상을 充당한다
2. 本 聯盟이 규정하는 圖書館關係 諸 단체의 회비, 잡지代 등
3. 朝鮮內의 도서관 관계 諸 會合, 講習會에 必要한 經費
4. 本 聯盟이 指定하는 圖書館用品
5. 圖書 相互貸借의 運費⁶²⁾을 規定하였다.

上記의 「朝鮮圖書館聯盟 規約」및 同聯盟 協力經費申書의 內容으로 보아 同聯盟이 그야말로 ‘朝鮮의 公共圖書館運動史上 劃期的 事業’⁶³⁾을 計劃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아니 積極的으로 높이 評價해야 할 것이다. 規約 第3條에 記錄된 事業을 보건 때, 1935年의 全國圖書館大會의 答申案中 전혀 무시되었던 建議內容을 館界 스스로가 實行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標準目錄·用品의 規格化·圖書館의 相互貸借, 圖書館講習會 등의 事業으로 圖書館의 基本的인 業務에 있어서의 統一 또한 全體的인 level-up을 꾀한 것이리라. 그러나 처음부터 이니셔티브를 잡은 것이 總督府 圖書館이었다는 점, 規約 第8條에 定해진 것처럼 總督府 圖書館長이 理事長이 되는 것 및 第6條의 聯盟選定圖書를 우선 구입할 것 등을 볼 때, 강력한 思想統制가 있었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朝鮮의 公共圖書館運動史上 획기적인 事業을 행하기 위해 結成된 「朝鮮圖書館聯盟」은 그 원대한 設立目標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으로는 몇개의 新設 도서관의 준비, 강습회 개최, 機關誌 『文化源泉良書』를 發行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하기가 戰時體制下의 各方面에 結成統制가 이 이상의 것은 허락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편 이 期間에 있어서 朝鮮人의 圖書館 設立運動은 特記할만 하다. 1933年度以後의 總督府 統計年報에는 設立種別 道別의 統計밖에 記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62) “後凋錄—朝鮮圖書館聯盟創立委員會並總會記事一,” 文獻報國, Vol. 5, no. 6, 1939, pp. 21-24.

63) Ibid., p. 20

新設圖書館을 正確하게 把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때까지 個人에 의해 設立되었던 私立圖書館의 대부분이 일본인에 의하였던 것에 비해, 1930年代 말엽에는 朝鮮人에 의한 圖書館이 차례로 設立되었다. 그 중에는 地方의 有志가 設立費를 기부하여 行政當局이 創立한 晉州圖書館(1937年)이 있는가 하면, 個人의 기존文庫를 기초로 하여 設立한 安州의 中軒文庫(1937年), 새로이 設立된 南原圖書文庫(1939年), 私財를 털어서 設立한 財團法人에 의한 中京文庫(1944年), 教會圖書室의 開放, 兒童文庫의 開設⁶⁴⁾등도 있었다.

이들 私立圖書館의 規模 등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設立動機는 地域의 教育, 文化의 啓發에 있었다고 看取된다. 日本人에 의한 植民地 教育의 目的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 教育에 의해 朝鮮人이 점차 각각하여 知的水準을 높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時期中の 圖書館을 總督府 統計年報를 中心으로 分析해본 바로는 公共圖書館이 增加하고 私立圖書館이 점차 減少되어가는 傾向이 보인다. 前記한 新設 私立圖書館이 正確히 統計에 算入되어 있다고 한다면, 既存의 有名無實한 圖書館은 廢館되었다는 것이 되겠다.

公立圖書館이 新設 增加되었다고는 하지만, 館界의 一般의인 사고방식은 ‘圖書館의 普及은 그 性格上 완전히 官力에만 의존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民間有志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現狀’⁶⁵⁾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府立이라고는 하지만 그 中에는 個人의 기부금 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도서관도 많았다. 더우기 官力에만 의존하기가 어려웠던 관계로 늘 熱誠의인 適任者의 理想的인 經營이 主張되었던 것이다.

戰爭氣運이 高揚됨에 따라 圖書館은 社會로부터 더욱 냉대받고 圖書館人 스스로가 職業에 대한 反省을 하기에 이르렀다. 圖書館이라는 職場에 있어서는 하등 生活의 위협도 없으며 ‘편히 앉아서 소위 文化事業에 종사할 수 있음은 고마웁기 이룰데 없으나, 이 때문에 오히려 진지하지 못하고 氣魄이 모자람도 事實이다. 도서관에 틀어박혀 설사 時局 認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겨 社會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고, 對外活動은 오직 圖書를 통해 간접적이기 때문에 確實性이 부족한 등등 圖書館事業의 소극적인 面을 어떻게 해서 打開할 것인가, 新日本文化 創造·建設에 무엇으로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⁶⁶⁾

64) 靑水修三, “最近に於ける朝鮮の圖書館界” 文獻報國, Vol.7, no.11, 1941, pp.11-12.

65) Ibid., p.12.

66) 向井謙三, “戰域の反省,” 文獻報國, Vol.8, no., 1942, p.1.

이러한 圖書館人의苦心은 米英思想 反映의 圖書를 어떻게 控除할 것인가. 米英式 圖書館事業 經營法에의 批判, 이에 대해 日本 獨自的인 것의 創成여하라는 問題로 까지 進展하였다.⁶⁷⁾ 더우기 圖書館의 社會的 使命으로서 '오늘 날 國民의 머릿속에서 歐米의 世界觀을 축출하고 日本의 世界觀을 수립하는 急務의 完成을 위해 일제히 挺身하는 것이야말로 總力戰下 報國의 第一의 使命이며 圖書館의 時局의 存在가 價置지워진다'고 言明하며, 따라서 圖書館員에 지워진 임무는 극히 重要하다고 스스로 時代的 認識을 새로이 하고, 總力戰下의 文獻報國의 忠誠을 맹세하였지만 이것은 圖書館側의 一方의인 感상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圖書館으로서 할 수 있었던 것은 「米英思想 反映의 圖書를 控除」하는 일과 戰爭末期에는 圖書를 疎開하기 위해 짐을 싸는 일밖에 없었다. 圖書의 疎開가 시작되자말자 戰爭은 끝나고 朝鮮에 있어서의 36年間に 걸친 民族受難史와 더불어 日本人에 의한 圖書館活動도 終止符를 찍게 된 것이다.

IV. 結 語

以上에서 開化期 및 日帝統治下의 圖書館活動이라는 有機體를 극히 微視的인 觀點에서 그 組織의 하나하나를 分析하고 叙述해 왔다. 그러면 이 時代의 圖書館活動은 어떠한 意義를 가지며 어떻게 評價되어야 하는가. 本章에서는 이러한 疑問에 대해 이 期間동안의 圖書館活動을 보다 巨視的인 眼目에서 再考하고자 한다.

오랜 鎖國끝에 門戶를 開放한 韓國이 當面하였던 가장 큰 社會的 問題의 하나는 높은 文盲率 및 民衆의 無知와 教育機關의 絕對的인 不足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改善할만한 經濟的 基盤이 쇠약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뿐만아니라 門戶開放과 함께 韓國에 대한 諸列強의 利權爭奪이 한층 더 激甚해졌다.

韓日合併以前의 韓國人에 의한 圖書館運動은 나라의 運命에 危懼를 느낀 一部知識人에 의해 必要不可缺의 '民知開明' 手段으로 認識되고 試圖되었으나, 獨立國으로서의 主體性을 잃고 斜陽길에 접어든 國運과 함께 빛을 잃고 말았다.

이 時期의 圖書館이미지를 特徵지운다면, 그것은 學校의 代用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學校의 設立을 위해서는 整備해야 할 必須條件이 많으나, 圖書館이라는 것은 한 곳에 書籍(資料)를 蒐集해 두기만 하면 일단 가장 初步的인 知識普及은 可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圖書館의 이미지는 日本에 의한 統治下에서 더욱 具體化되었다 하겠다.

67) Ibid.

日本에 併合된 韓國에는 言論·出版活動이 禁止되고 韓國語使用 역시 制限되었다. 또한 初代總督 寺內에 의해 多數의 韓國語書籍이 燒却되었다. 한편 1920년에 이르기 까지 韓國人으로서 日本語를 다소나마 理解할 수 있는 자는 全人口의 約 2%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時期에 韓國人에 의한, 韓國人을 위한 圖書館活動이 거의 없었음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圖書館이 햇빛을 보게 된 것은 1919년의 독립운동에 의해 소위 文化政治로 바뀌어서부터의 일이다. 독립운동은 失敗로 끝나고 말았으나, 이는 總督府爲政者로 하여금 처음으로 社會敎化, 社會敎育을 생각하게 하는 契機가 되었다. 言論·出版活動이 復活되고 韓國語書籍의 出版역시 制限은 받았으나 發行部數는 서서히 增加되었다. 1923年, 前年度에 公布된 朝鮮敎育令을 記念하는 事業으로서 總督府圖書館이 創立되었다. 總督府圖書館의 活動은 다음 두가지 점에 있어서 높이 評價해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하나는 總督府圖書館設立 以前까지 散發的으로 設置되어 아무런 相互協力도 없이 試行錯誤속에서 運營되어온 館界를 指導統制하여 發展을 꾀하려 努力한 것과 다른 하나는 오늘의 國立中央圖書館의 制度의 기틀을 마련한 점이다.

그러나 1930년까지 韓國人으로서 日本語를 읽고 쓸 수 있는 者는 全人口의 6.8%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總督府圖書館, 他公·私立圖書館을 막론하고 奉仕對象範圍는 극히 制限되어 있었음은 물론이다. 本論에서 이미 記述한 바와 같이 目的追求的이었던 利用者를 對象으로 思想敎化活動을 遂行한다는 것은 不可能했으리라. 또한 植民地에 있어서의 社會敎育이란 어떠한 것인가? 敎育은 民衆을 自覺시킨다는 普遍的 眞理에 입각하여 植民統治에 必要한 初等實業敎育에는 努力을 傾注하였으나, 社會敎育이 敬遠되었음은 確實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 當時 社會敎育이라고 指稱되던 것도 그 本質은 바로 社會敎化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敎化活動에 있어서 까지 높은 文盲率로 인하여 爲政者를 기쁘게 할 만한 業積을 達成할 수 없었던 圖書館이 當局으로부터 冷待 받은 것은 오히려 當然한 일이었다 하겠다.

1937年の 中日戰爭, 41年の 太平洋戰爭으로 계속되는 戰時體制下에서 圖書館은 「不要不急」한 事業으로 認識되어 社會로 부터의 冷待는 더욱 심각해졌으며, 드디어 圖書館人 스스로가 職域에 대한 時勢順應的인 態度變容을 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結果的으로는 思想의 觀測, 良書普及, 不穩書籍의 取締 등을 통해 圖書館을 가장 體制에 協助的인 機關이 되게끔 한 것이다.

그러나 보다 重要한 問題는 開化期에 새로운 公共圖書館思想이 導入되어서부터 日帝의 統治가 끝나기 까지 약 40餘年에 걸쳐 잘못 理解된 圖書館思想·活動, 社會

的 認識이 오늘 날의 公共圖書館活動에 까지 크게 影響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다. 특히 開化期에 있어 學校의 代用物로서 紹介되어 植民統治下에서는 文盲打破를 위한 機關으로 밖에 認識되지 못하였던 公共圖書館은 學校教育制度가 整備된 오늘날 까지도 社會에 제대로 認識되지 못하여 結局은 ‘공부방’으로 轉落해 버리고만 것은 아닌가. 또 높은 文盲率로 대부분의 民衆은 讀書習慣을 기를 수 없었으며 그 때문에 讀書活動은 항상 限定된 特殊階層의 專有物로 誤認되어 왔다. 이러한 點들이 바로 오늘날까지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阻害하는 決定的인 要因이었다고 判斷되어 진다.

今後 우리 나라의 公共圖書館의 보다 建設的인 發展을 위해서는 圖書館의 本質뿐만 아니라 社會의 要求에 積極 呼應할 수 있는 圖書館으로서의 役割에 關係 진지하게 생각해 볼 時期가 왔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體系的인 歷史的 研究를 통해 不振의 要因을 分析하고, 오늘의 問題를 直視할 것이 要求되며 이점이 바로 今後에 남겨진 重要한 課題라 하겠다.

韓國圖書館協會 出版案內

100 서울特別市 中區 會賢洞1街100-177 (社)韓國圖書館協會
☎ (22) 4864 · 5613 對替計座 서울中央537530

韓國十進分類法 第3版	25,000원	古書分類目錄法(上)	3,500원
韓國目錄規則 第3版 豫定價	10,000원	韓國十進分類法解說	3,500원
公共圖書館의 施設	5,000원	圖書館의 組織과 管理	3,500원
非圖書資料의 整理	3,500원	西洋圖書館史	3,500원
參考奉仕論	3,700원	公共圖書館運營	3,500원
情報科學과 컴퓨터	3,500원	發展途上國의 圖書館	3,500원
情報經濟學原論	4,500원	圖書館 및 文獻利用法	3,500원
大學圖書館建築計劃	8,000원	中國의 典籍	3,500원
圖書館學概論(專門大)	3,900원	圖書館과 社會	3,500원
圖書館學概論(任鍾淳)	3,500원	大學圖書館	3,500원
韓國圖書館史研究	3,500원	舊韓末古文書解題目錄	5,000원
圖書館統計 및 評價	3,500원	韓國의 冊板紋樣	20,000원
公共圖書館	3,500원	圖書館과 資料의 活用法	3,500원
韓國目錄規則解說	3,500원	어린이 圖書館	3,800원